

여자 대학생들의 지도성에 관한 일 연구

—지각향성과 권위주의 성격과의 상관 중심으로—

한 정 석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목 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1. 권위주의적 성격
 - 2. 지도성 유형
 - 3. 지각향성
- I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및 조사기간
 - 2. 척도의 선정
 - 3. 자료처리 방법
- IV. 결과
 - 1. 요인간의 상관 관계
 - 2. 요인별 집단간 차이 분석
- V. 논의 및 결론
- VI. 제언
 - ※ 참고문헌
 - ※ 영문초록

I. 서론

인간은 사회생활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상호작용 및 상부상조의 자각이 생기고 협력이 습성화 되어 심리적으로 의존과 우월등의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나타난 집단유지 현상의 하나가 바로 지도와 피지도의 관계이다. 이와같은 것을 지도성(Leadership)이라고 표현한다.

지도성에 대한 연구는 산업의 발달에 따른 효율성과 생산성을 관계지어 더욱 활발히 연구되

어 지고 있다.

연구의 내용에 있어서도 지도성을 성격적인 특성으로 파악한 특성론(Traits theory)적 연구가 지배적인 경향에서 차츰 개인적 특성보다 그때 상황에서 주어진 요소가 지도성을 결정하는 주요인이라는 상황론(Situational theory)으로 대두되며, 최근에는 이 두가지 요소가 상호작용을 통하여 결정된다는 상호작용론(Interaction theory)으로 주된 접근방법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상의 한여러 접근 방법을 받아들여 기업, 경영, 교육, 군대 등의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연구 가운데 상호작용론의 입장에서 성격 특성으로서는 권위주의적 성격과 지도성의 유형으로는 민주형, 자선형, 전제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그리고 집단의 분위기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물¹⁾이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권위주의적 성격과 지도성 유형 사이에는 커다란 상관이 있다고 하며 자선적 전제형을 가장 가치 있고 바람직한 지도성으로 보았으며, 그와 같은 형질에서 작업을 할 때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아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사용한 대학생 집단간의 차에 관한 연구²⁾에서도 권위주의 성격과 지도성 간에는 높은 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지도성 유형 역시 자선적 전제형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편 외국의 연구에서도 권위주의적 성격과 지도성 유형에 관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1) 오세철, The effect of Leadership on Group Education and performance in a Korean Industrial Form III. Northwestern Univ. Press 1975

2) 안계훈, "대학생 집단의 지도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1976.

서 Medalia³⁾의 연구를 보면, 높은 지도자 수용성과 성원들의 높은 권위주의가 긍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같이 권위주의와 지도성 유형에 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져 하는 지각적인 요인과 결부된 연구는 없으므로 권위주의적 성격과 지도성 유형 및 지각향성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전문직을 준비하고 있는 여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함이며,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를 통하여 간호학을 전공하고 학생들의 지도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얻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내용은 성격 특성으로는 Adorno의 권위주의적 성격 척도를, 태도측정은 오세철의 지도성 유형 척도를, 지각에는 최정훈의 지각향성 검사를 각각 사용하여서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 내고져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권위주의적 성격

권위주의란 권위속에 포함되어 있는 신비적인 위임을 이용하여 인간을 타율적으로 구속하는 것⁴⁾으로서 반민주적이고 잠재적으로 독재적인 사회적 태도들을 지칭하는 집합적 용어⁵⁾로서 Maslow는 10가지 구별⁶⁾으로 나누어 Adorno⁷⁾ 등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척도가 개발되었다. 이후의 연구는 주로 이 척도를 이용한 것 들이고, Webster, Sanford Freeman 등⁸⁾ 이 이를 수정하여 신뢰도를 훨씬 높였다.

2. 지도성 유형

지도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학문적인 성격이나 방법들에 따라서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해 왔다.

주로 개인 심리적인 입장을 취한 사람은 특성론적 입장에서 지도성을 측정하려 했고, 분석 연구의 초점을 리더가 처해 있는 그때 그때 상황에 두고 연구하던 사회학자들은 상황론적 입장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사회 심리학자들은 상호작용론의 입장을 취했다.

이와같이 여러가지 접근 방법으로 연구하다가 지도자가 갖는 지도 행동을 그 기능의 유형에 중점을 두고 분류한 유형론이 대두 되었고, 이는 광범위하게 지도성 연구에 적용되어 왔다.

유형의 분류에서 가장 고전적이고 유명한 것은 K. Lewin과 그의 제자들의 분류⁹⁾로서 그들은 지도성을 전제형, 민주형, 자유방임형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H. Jennings¹⁰⁾는 지도자와 성원의 접촉 형태에 초점을 두고 설득형 지도성(Persuasive Leadership), 지배형 지도성(Dominant Leadership), 전문가형 지도성(Specialist Leadership), 회장형 지도성(Institutional Leadership)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Terry¹¹⁾는 성격의 특성에 따라 개인적 지도성, 비 개인적 지도성, 자생적 지도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1915년부터 1951년까지 16명의 리더십에 관한 저서의 저자들을 분석 연구한 R. Stogdill¹²⁾ 연구를 보면, 지도성 유형을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고, 각 유형을 내세운 저자의 수는 다음과 표와 같다.

지도성 유형	저자의 수
권위형(지배자형)	7
설득형(균중봉기형)	8
민주형(집단개발형)	7
지적형(유능한 사람)	6
행정가형(행정가)	6
대표자형(대변인)	4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자들에 따라서 각기

3) Medalia N.Z. "Authoritarianism, Leader Acceptance and Group Cohesion" J. of Abnormal Social Psychology Vol. 51, 1955. pp. 207~213

4) 학원사 편집국, 권위주의의 철학개사원. 서울 학원사 1972, p. 796

5) Encyclopedia of Psychology: A Standard Reference Work in 3 volumes. ed. by. H.J Eysenck. A. Arnold R. Meili p. 102.

6) Maslow, A., "The Authoritarian Character Structure" J. of Social Psychology Vol. 18, 1943 pp. 401~411.

7) Adorno, W.W et al.,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C.N.Y: The Norton Library W.W. Norton Co. Inc. 1969, pp. 222~242

8) Sanford F.H., Authoritarianism and Leadership; A Study the Followers Orientation to Authority. (Philadelphia. Institute for Research in Human Relations, 1950)

9) Fiedler F.E., "The theory of Leadership effectiveness, N.Y. McGraw-Hill Book Co. 1967, p. 12.

10) Jennings H.H., "Leadership & Isolation," N.Y. Long Mans' Green, 1943

11) Terry, G., "Principles of Management" Iil. Homework Richard D Irwin, Inc. 1971, pp. 509~511.

12) Stogdill, R., "Handbook of Leadership: A Survey of Theory and Research, N.Y: The Free press, A Division of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74 p. 9.

다른 관점에서 각기 구분하고 있으나 공통된 점은 기능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가치의 분류인 오세철¹³⁾의 민주형, 전제형, 자선적 전제형을 들 수 있으며, 이것은 동양인들의 지도성을 고려해서 분류한 것이라고 보고 본 연구는 이 분류법을 중심으로 하여 수행하였다.

3. 지각형성(Perceptual Orientation)

지각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은 행동하는 자의 즉각적인 자아 및 타인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지각의 함수라고 이해하고 있다. 쿨스와 스니그¹⁴⁾는 모든 행동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그 행동하는 생체의 지각의 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여기서 지각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행동을 하는 그 순간에 경험하는 자아를 포함한 모든 우주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각의 장의 특징은 안정성, 유동성, 밀집성, 방향성 등이며, 이와같은 특징들은 모두 주관적이며, 이것을 객관화시켜 파악할 수 있게 되어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각이란 것은 개개인의 내면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직접 관찰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와같은 연구에서는 추리(inference)라는 방법을 활용하여 내면의 세계를 객관화 시켜야 한다. 객관화된 지각의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의 내면성을 파악하게 되며, 또한 행동과의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와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지각형성 검사인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조사 기간

이상의 이론적 배경에서 살던본 세가지 측면에 상관관계를 알기 위하여 서울시내에 소재한 2개 여자대학교 4학년 학생 22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피험자 226명을 3개 집단으로 나누었다(집단 1. 가정대학 집단 2. 사범대학(이공과) 집단 3. 간호대학)

조사기간은 1977년 3월~4월까지 약 1개월간이었다.

응답자의 집단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응답자

전공분야	가정대	사범대 (이공과)	간호대	총 계
학생 수	71	55	100	226

2. 척도의 선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권위주의 측정 척도인 F-척도 지도성 유형척도 및 지각형성 검사 등이다. F-척도는 Adorno의 것을, 지도성 유형 척도는 오세철의 것을, 그리고 지각형성 검사는 최정훈의 것을 각각 사용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권위주의 (F) 척도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요소는 ①보수주의(Conventionalism) ②권위주의적 굴종(Authoritarian submission) ③권위주의적 공격성(Authoritarian aggression) ④미신의 고정관념(Superstition & Stereo type) ⑤힘과 강건성(Power & Toughness) ⑥파괴성과 냉소성(Destructiveness & Cynicism) ⑦투사성(Projectivity) ⑧성(Sex)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지도성 유형척도

지도성 유형은 민주형, 자선적 전제형 등으로 분류하였고, 각 유형에 8개 문항의 질문문이 되어 있어 응답자가 답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3) 지각형성 검사

본 검사는 60개 문항으로 되어 있고 자기의 평소의 생각을 진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검사의 문항은 자아에 관한 지각 타인에 관한 지각 20개, 직업에 관한 지각 20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문항의 구조는 긍정 36개, 부정 문항 24개로 조직되어 있다.

3. 자료처리 방법

모든 척도들에 대한 통계는 빈도, 표준편차, 평균과 피어슨 적률 상관계수, 그리고 변량분석 및 집단간 차이 분석 등 제방법으로 분석하였다.

IV. 결과

1. 요인간의 상관 관계

요인간의 상관 관계는 표 2와 같다.

13) 오세철, 전제서 1975.

14) Coms, A.W. & Snygg, D., "Individual Behavior" A Perceptual Approach to Behavior, N.Y. Harper Brothers. 1959, p. 20.

<표 2>

요인간의 상관관계

		권 위 주 의			지 도 성			지 각 향 성			
		가정대	사범대	간호대	가정대	사범대	간호대	타 인	자 기	직 업	전 체
권 위 주 의					0.069	-0.004	0.078	0.098	0.047	0.012	0.227
지 도 성								-0.028	0.010	0.010	0.028
지 각 향 성	타 인										
	자 기										
	직 업										
	전 체										
		지 각 향 성									
		사 범 대				간 호 대					
		타 인	자 기	직 업	전 체	타 인	자 기	직 업	전 체		
권 위 주 의		-0.050	0.093	*0.275	**0.480	0.056	*0.228	0.155	**0.560		
지 도 성		0.166	0.080	-0.227	**0.560	0.095	0.147	0.109	0.143		
지 각 향 성	타 인										
	자 기										
	직 업										
	전 체										

*p < .05

**p < .01

피어슨 적률 상관계수에 의한 상관에서 전반적으로 요인간에 큰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집단별 요인간 상관관계는 표 2와 같다.

권위주의 성격과 지도성 유형간에는 [표-2]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3집단간의 유의 있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권위주의의 지각향성간에는 사범대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지각향성과 간호 대학생들의 자신에 관한 지각이 각각 5% 수준에서 유의 있는 정적 상관(positive correlation)이 있음을 나타냈다. 사범대 학생과 간호대 학생의 지각향성의 전체가 1% 수준에서 유의 있게 나타났다. 한편 지각향성 사이에는 사범대 학생이 지도성과 지각향성이 1%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를 나타냈다. 통계적으로 유의 있게 나타난 여러 집단간의 요인별 상관에서 권위주의 성격과 지각향성의 경우는 사범대가 향성의 직업의 경우에 7.56%($r^2=0.0756$)로 상호 영향하

에 있으며, 전체의 경우에는 23.04%($r^2=0.2304$)로 영향하에 있다. 간호대 경우는 자기 지각의 경우 5.19%($r^2=0.0519$)로 전체 지각의 경우 31.36%($r^2=0.3136$)로 상호 영향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성과 지각향성과의 경우는 사범대의 전체 지각의 경우만이 31.36%($r^2=0.3136$)로 상호 영향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요인별 집단간 차이 분석

요인간 집단별 반응의 분포와 차를 알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변량분석 검증을 하였다.

1) 권위주의 성격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권위주의 성격에 있어서는 간호대가 가장 높고, 다음이 가정대, 그리고 사범대 순위로 나타났으며, 표준 편차에 있어서는 3집단간의 차가 없이 나타났다.

〈표 3〉 권위주의의 점수 분포

	사 례 수	평 균	표준편차
가 정 대	71	77.5	7.24
사 범 대	55	73.9	7.26
간 호 대	100	76.8	7.26
전 체	226	76.70	7.30

변량분석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권위주의의 변량 분석 N=226

변 량 원	자 승 화	df	변량추정치	F
간	872	2	436	8.05
내	12082	223	54.18	p<.05
전 체	12954	225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5% 수준에서 3집단간이 의의 있는 차가 있음을 나타냈다. 차가 있는 집단이 어느 집단인지 알기 위하여 Scheffé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권위주의의 성격의 여러집단 검사 (Scheffé의 검사)

	\bar{X}_1	\bar{X}_2	\bar{X}_3
$\bar{X}=77.50$		3.65	1.30
$\bar{X}_2=73.85$			4.95
$\bar{X}_3=78.80$			

\bar{X}_1 : 가정대학 학생의 평균치
 \bar{X}_2 : 사범대학 학생의 평균치
 \bar{X}_3 : 간호대학 학생의 평균치
 p<0.5

〔표 5〕에 나타난바와 같이 사범대학생과 간호대학생에서 5% 수준에서 의의 있는 차를 나타냈다.

2) 지도성 유형

〈표 6〉 지도성 유형의 점수 분포

	사 례 수	평 균	표준편차
가 정 대	71	13.2	1.27
사 범 대	55	13.14	1.5
간 호 대	100	13.2	1.39
전 체	226	13.2	1.37

〔표 6〕에 나타난바와 같이 3집단의 전체 평균이 13.2로 자선적 전체형에 속한다. 각 집단의 평균이나 편차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표 7〕에 나타난바와 같이 F=0로 지도성 유형의 집단간의 차이가 없다.

〈표 7〉 지도성의 변량분석 N=226

변 량 원	자 승 화	df	변량추정치	F
간	0	2	0	0
내	297	223	1.33	—
전 체	297	225	1.33	0

3) 지각 형성

(1) 타인지각

타인 지각의 점수 분포는 [표 8]과 같다.

〈표 8〉 타인 지각의 점수 분포

	사 례 수	평 균	표준편차
가 정 대	71	65.8	8.05
사 범 대	55	65.2	4.5
간 호 대	100	65.7	5.02
전 체	226	65.57	5.86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평균 65.57로 집단간에 차는 없으나 가정대에서는 8.05로 집단간에 비하여 높은 편차를 나타냈다.

〈표 9〉 타인 지각의 변량분석 N=226

변 량 원	자 승 화	df	변량추정치	F
간	10	2	5	0.12
내	9247	223	41	
전 체	9757	225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집단간의 차 없다.

(2) 자기 지각

〈표 10〉 자기 지각의 점수 분포

	사 례 수	평 균	표준편차
가 정 대	71	61.8	19.12
사 범 대	55	62.30	17.5
간 호 대	100	62.1	6.14
전 체	226	62.07	14.25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3집단간의 차는 없으며, 가정대 (19.12), 사범대(17.5)로 높은 편차를 보였다.

〈표 11〉 자기 지각의 변량 분석

변 량 원	자 승 화	df	변량추정치	F
간	2	2	1	0.005
내	47464	223	213	
전 체	47466	225		

집단간의 차를 알기 위하여 변량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기 지각은 3집단간 차가 없다.

(3) 직업에 대한 지각

지각에 대한 점수 분포는 [표 12]와 같다.

<표 12> 지각에 대한 지각의 점수 분포

	사	례	수	평	균	표	준	편	차
가정대			71		59.8				16.97
사범대			55		60.18				4.5
간호대			100		62.7				3.46
전체			226		60.89				8.31

[표 12]에 의하면 직업에 대한 지각은 간호대가 제일 높고, 사범대, 가정대 순위로 나타났다. 집단간의 차를 보기 위한 변량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직업에 대한 지각의 변량분석 N=226

변	량	원	자	승	화	df	변	량	후	정	치	F
간			401			2	201					1.13
내			39620			223	178					
전			40021			225						

[표 13]에 의하면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전체 지각

전체 지각의 점수 분포는 [표 14]와 같다.

<표 14> 전체 지각의 점수 분포

	사	례	수	평	균	표	준	편	차
가정대			71		187.3				12.78
사범대			55		184.5				36.1
간호대			100		190.5				12.4
전체			226		187.43				20.43

[표 14]에 의하면 전체 지각은 간호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가정대, 사범대 순위이고, 표준 편차는 사범대가 36.1로 높게 나타났다.

집단간의 차를 보기 위한 변량분석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전체 지각의 변량 분석

변	량	원	자	승	화	df	변	량	후	정	치	F
간			1,212,634			2	601,317					*69
내			1,956,056			223	8,772					
전			3,168,690			225						

*p<0.5

[표 15]에 의하면 5%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로 나타났다. 어느 집단간의 차가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Scheffé 검사를 했다.

<표 16> 전체지각의 Scheffé 검사

	X ₁	X ₂	X ₃
X ₁ =187.30		2.81	3.20
X ₂ =184.49			*6.01
X ₃ =190.50			

*p<0.5

[표 16]에 의하면 사범대, 간호대 두 집단간에는 5% 수준에서 유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조사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몇가지의 경향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위주의 성격은 지각향성과 상관을 가지고 있으며, 지각중에서도 전체 지각이 사범대학과 간호대학이 공히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사범대학은 직업에 대한 지각과 간호대학은 자아지각과 상관을 갖고 있음이 나타났다. 집단간에 차를 보면 간호대학이 권위주의 성격과 직업에 대한 지각, 그리고 전체 지각의 점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정대학이 권위주의 성격과 전체지각에서 사범대학이 직업에 대한 지각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같이 권위주의 성격과 지각 사이에 상관이 있게 나타난 것은 직업을 위한 준비 과정과 교육의 과정에서 오는 차이라고 볼 수 있겠다.

둘째, 권위주의 성격과 지도성 유형간에는 유의 있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와같은 결과는 안의 ROTC 일반대학생과 군학생 등 세 집단간의 비교연구¹⁵⁾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나타났다. 한편 지도성 유형은 세집단이 공히 자선적 전체형을 나타냈는데, 이 결과도 역시 “안”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이와같이 나타난 결과를 고려해 보면 결국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민주형이나 전체형 보다는 엄한 한편 자비로운 아버지과 같은 형을 가장 바람직한 지도성 유형으로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셋째, 지각향성의 경우에서는 사범대학에서 전체 지각과 지도성 유형 사이에만 유의 있는 관계가 있음을 나타냈으며, 집단간의 차에 있어서는 개인, 자기 직업등에 관한 지각에서는 차가

15) 안창규: 대학생 집단의 지도성에 관한 일 연구. 연세대 대학원 학위 논문, 1976.

없었으며, 다만 전체 지각에서 사범대학과 간호대학 간에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직업을 준비하는 대학에서도 직업에 대한 지각의 차가 없었고, 의의가 없이 나타난 것은 아직도 준비 단계에 있는 상태인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VI. 제언

이상과 같은 본 조사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간호학이라는 전문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직업의식과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Curriculum)과 교육의 과정(Process of education)을 통하여 충분히 강화하여 자신들이 졸업후에 종사하게 될 전문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둘째,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적 생활태도를 갖도록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책임의식,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며 자증감을 갖도록 함이 요청된다.

셋째, 현 단계에서 바람직한 지도성 유형을 자선적 전제형이라고 나타났으나 앞으로는 민주형의 지도성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교수-학습의 지도가 가능한 한 권위주의적인 방향으로

지양되어져야 하겠다.

비록, 이와같은 연구는 학생에 국한시키지 말고 현재 졸업하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하여 얻어진 결과는 학생지도에 유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1) Adorno., T.W.,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W.W. Norton & Comp. Inc. 1969
- 2) Fiedler, F.E., *A Theory of Leadership Effectiveness*, New York, McGraw Hill Book Comp., 1967
- 3) Kirk, R.E., *Experimental Design: Procedure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Belmont, California Books Cole Publishing Comp., Adivision of Wadsworth Publishing Comp., Inc. 1968
- 4) Oh, S.C. *The effect of Leadership on Group Interaction and Performance in a Korean Industrial Firm III*. Northwestern Univ. Press. 1975.
- 5) Stogdill, *Handbook of Leadership: A Survey of Theory and Research*, N.Y. A Division of MacMillan Publishing Co. Inc. The Free-Press. 1974.
- 6) 김명훈 : 리더십론. 서울대왕사 1975.
- 7) 최정훈 : 지각심리학. 서울 을유문화사 1972

=ABSTRACT=

A Study on the Leadership of three different College Woman's Students

Jung Suk Han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interrelationship among Leadership style, Authoritarian personality, Perceptual orientation, for the three different college woman's students: college of nursing students, college of home economics students and teacher's college students.

It was also intended to find differences of the relationships for the three different groups under study.

For this study, 226 woman's students from three college in Seoul were randomly selected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questionnaires.

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one way analysis of variance, scheffé's test and t-test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following result were found from this study:

1. For the whole groups, the correlations between authoritarian personality and leadership style were not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correlations between authoritarian personality and perceptual orientation, between leadership style and perceptual orientation were partially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2. The mean differences of authoritarian personality for the three different group were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the Scheffé test indicated that the mean only between college of nursing students and teachers college studen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3. It was also found that the mean different of leadership style for the three different group were not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all of the three different group indicated benevolent authoritarian leadership style, that the mean difference of perceptual orientation for the three different group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the scheffé test indicated that the means only between college of nursing students and teachers college studen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이 달의 수증간행물

- | | |
|--|---|
| 「과학과 기술」 제11권 1, 2호(1, 2월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지역사회보건사업(춘성군)」 서울대보건대학원 |
| 「기러기」 제14권 1, 2호(1, 2월호) 홍사단 | 「중앙의학」 34권 1, 2호(1, 2월호) 중앙의학사 |
| 「녹십자 의보」 제 6권 1, 2호(1, 2월호) 주식회사녹십자 | 「출판문화」 통권 148, 149호 (1, 2월호) 대한출판문화협회 |
| 「대한병원협회지」 제 7권 1, 2호(1, 2월호) 대한병원협회 | 「한국의 보건문제와 대책 (I, II) 한국개발연구원보건기획단 |
| 「대한의학협회지」 제21권 1, 2호(1, 2월호) 대한의학협회 | 「한국 YWCA」 제14권 1, 2호(1, 2월호) 한국 YWCA연합회 |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16권 1, 2호(1, 2월호) 대한치과의사협회 | 「看護技術」 제24권 1, 2호(1, 2월호) 일본메디칼프린트사 |
| 「동아의보」 통권 101호, 102호(1, 2월호) 동아제약주식회사 | American Journal of Nursing (1, 2월호) |
| 「보건세계」 제21권 1, 2호(1, 2월호) 대한결핵협회 | Horizon U.S.A No. 25 |
| 「복지」 통권 제63, 64호(1, 2월호) 대한나협회 | Sairaanhoitaja sjuksköterskan (1, 2월호) |
| 「서울약사회지」 제 3권 1, 2호(1, 2월호) 서울특별시약사회 | The Australian Nurse Journal (1월호) |
| 「새마을」 제 5권 1, 2호(1, 2월호) 대한공론사 | The Canadian Nurse (1, 2월호) |
| 「인간과학」 제 2권 1, 2호(1, 2월호) 성심중앙유지재단 | U.S. Commercial Newsletter (3월호), 주간미국대사관 |
| 「여성」 통권 139(1, 2월호) 여성단체협의회 | Nursing Research (1, 2월호) |
| 「월간간호」 통권 11호 12호(1, 2월호) 월간간호사 | World Health (1월호) W.H.O. |